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조승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jcho@kiep.go.kr, Tel: 044-414-1248)
김남석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nskim@kiep.go.kr, Tel: 044-414-1080)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차 례

1. 최근 아세안 물가 동향
2. 아세안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3. 물가상승에 따른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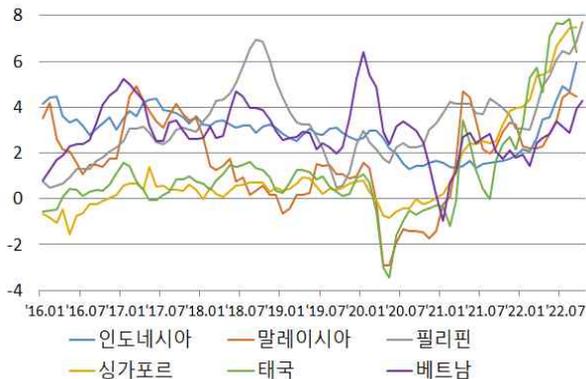
- ▶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아세안 주요국은 교통 및 식음료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아세안 주요국의 최근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7.7%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와 세계 식량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과 인건비 상승의 대내적 요인이 결합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음.
- ▶ 아세안 주요국은 통화긴축, 보조금 지급, TF 구성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음.
 - 2021년 10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세안 주요국은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했으며,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있음.
 - 아세안 주요국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료보조금과 현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아세안 주요국의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제되었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임.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와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로 아세안 주요국의 통화 가치는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상이 제한되었던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인상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2022년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됨.
- ▶ 아세안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임금상승은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디지털 통상협력을 포함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원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현지 진출 한국기업은 환율 변동과 임금상승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최근 아세안 물가 동향

-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추세 속에 2022년 들어 아세안 주요국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4월부터 3%대에 진입하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10월 5.7%를 기록함.
 - 2019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음.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9월 4.5%를 기록하며 2022년 8월(4.7%) 대비 상승세가 둔화되었음.
 -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등 원자재 수출국으로 202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대를 유지하며 다른 아세안 주요국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았음.
- [필리핀] 필리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10월에는 7.7%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지수도 5.9%로 상승함.
- [싱가포르]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5.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세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임.
 - 2020년 12월 10개월 만에 양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인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태국] 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1월 3%대에 진입한 이후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 10월 6.0%를 기록했으며, 동 기간 근원물가지수도 2022년 1월 0.5%에서 10월 3.2%로 상승함.
- [베트남]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변 아세안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으로 2022년 6월 3.4%까지 상승한 후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로 상승했으며, 근원물가지수는 2022년 1월 0.7%에서 10월 4.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그림 1. 아세안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CEIC(검색일: 2022. 11. 1).

그림 2. 아세안 주요국의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



주: 필리핀의 2022년 10월 수치는 필리핀 통계청 자료임.
자료: CEIC(검색일: 2022. 11. 1); 필리핀 통계청(검색일: 2022. 11. 9).

- 국제유가와 세계 식량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 및 식음료 부문이 아세안 주요국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22년 10월 기준 교통(16.0%), 식음료(6.8%)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오르며 높은 물가상승률을 견인했으며, 교통 부문 중에서는 특히 여객운송서비스 분야 물가상승률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남.¹⁾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2022년 9월 서민용 휘발유(페르타라이트) 및 디젤에 제공하던 보조금을 폐지해 해당 연료가격이 30% 이상 올랐으며, 이에 따른 여파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것이 여객운송서비스 부문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말레이시아] 2022년 9월 기준 부문별로는 숙박 및 요식업(6.9%), 식음료(6.8%), 교통(5.3%) 등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음료 부문 중에서는 우유·치즈·계란(8.8%), 쌀·빵·기타 곡류(6.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았음.
- [필리핀] 필리핀은 농산물 및 석유 수입국인 점과 폐소화 약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었으며, 2022년 10월 기준 교통(12.5%), 주류 및 담배(10.4%), 식음료(9.4%), 가스·수도·전기·연료 등 공과금(7.4%)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2022년 10월 말에 발생한 태풍 '날개'가 필리핀 남부지역을 강타해 추가적인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음.
- [태국] 태국 물가상승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식음료(9.6%), 교통(4.8%)이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올랐으며, 식음료의 경우 특히 육류(28.0%), 식용유지류(21.2%), 계란(20.4%)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상승함.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2년 9월 전년동월대비 전기(26.5%), 교통(19%), 육류(13.9%), 가스(11.1%) 부문의 물가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베트남] 2022년 9월 기준 교육 서비스(8.9%), 교통(6.7%), 외식(6.6%)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높은 편이며, 1~9월 누적의 경우 교통(15.0%), 외식(4.4%)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높은 편임.
 - 물가상승 가속은 대외적 요인 외에 인건비 상승(2022년 3/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6.8% 상승), 코로나19 완화 이후 사회·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대내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2. 아세안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가. 인도네시아

- [통화정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3.5%로 한동안 유지했으나, 최근 물가상승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4개월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며(3.5%→5.25%)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2~4%) 내에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 인도네시아 통계청(2022. 11. 1), "Series of Consumer Price Index October 2022," pp. 3-6.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까지 인하했으며(2020년 1월 5.0%→2021년 2월 3.5%), 이후 2022년 7월까지 이를 유지해왔음.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25bp, 9월 50bp, 10월 50bp, 11월 50bp 규모로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현재(2022년 11월 말 기준) 기준금리는 5.25%임.

■ [보조금 지급]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민용 휘발유(페르타라이트) 및 디젤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2022년 8월까지 유지했으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2022년 9월 폐지함.²⁾

- 조코위 정부는 2022년 152조 루피아(약 13조 원)로 책정했던 연료보조금 예산을 유가급등으로 502조 루피아(약 43조 원)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했으나, 계속되는 고유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2022년 9월부터 연료보조금을 폐지함.³⁾
- 연료보조금 폐지로 해당 연료가격이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년래 최고치인 5.95%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고물가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나⁴⁾ 2020~22년 한시적으로 이를 유예한 상황이며, 2023년부터는 다시 3% 미만으로 관리해야 함.

나. 말레이시아

■ [통화정책]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링깃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2022년 중반부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선회함.

-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5~11월 기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OPR: Overnight Policy Rate)를 100bp 인상함(1.75%→2.75%, 그림 3 참고).

■ [보조금 지급]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2년에 연료·식용유·전기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은 2022년 세입의 2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⁵⁾

- 2022년 예상 보조금 지출은 777억 링깃(약 167억 달러)으로 개발지출 예산(756억 링깃)을 초과함.

2) 페르타라이트는 인도네시아 서민들이 오토바이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옥탄가 90 이하의 저가형 휘발유임.

3) Strangio, Sebastian(2022. 9. 5), "Pain at the Pump as Indonesia Dials Back Fuel Subsidies," *The Diplomat*(검색일: 2022.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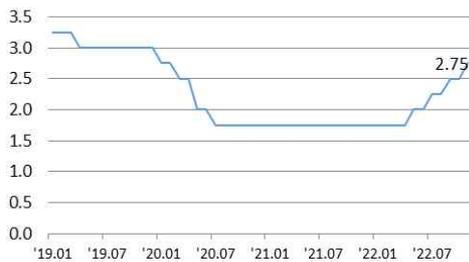
4) 김은수(2022. 6. 17),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네시아」, p. 4, 한국수출입은행.

5) Yeap, Cindy(2022. 7. 20), "Special Report: At RM77.7 bil, subsidies exceed budgeted development expenditure in 2022," *The Edge Markets*(검색일: 2022. 11. 10).

- 2022년 보조금 예산 항목별 비중은 석유(48%), 현금보조금(15.1%), 전기·닭고기·계란 보조금(13%), 식용유(5.1%), 기타 보조금(농어민, 18.8%)으로, 석유 부문이 절반가량을 차지함.
- 세입 대비 보조금이 2011~13년 유가가 높았던 시기에 20% 내외였음을 감안할 때 2022년의 25%를 초과하는 수치는 전례없이 높음(그림 4 참고).
 - o 최근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일각에서는 2022년 11월 19일 총선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그림 3. 말레이시아의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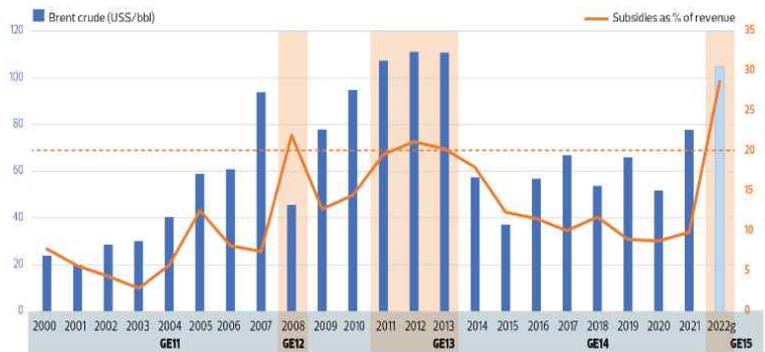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2. 11. 10).

그림 4. 말레이시아의 세입 대비 보조금 비중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좌), 세입 대비 보조금 비율(우))



자료: Yeap, Cindy(2022. 7. 20), "Special Report: At RM77.7 bil, subsidies exceed budgeted development expenditure in 2022," *The Edge Markets*(검색일: 2022. 11. 10)에서 재인용.

■ [수출제한, 가격 상한제]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자국 내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이 감소하자 정부는 닭고기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닭고기 및 계란 가격 상한제를 유지함.

- 정부는 닭고기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에 대응해 2022년 6월 1일부터 닭고기 수출중단조치를 시행했으며, 국내 가격 안정·수출업자 및 주변국 반발 등의 요인에 따라 2022년 10월 11일 자로 닭고기 수출을 일부 재개함.⁶⁾
- 정부는 표준 통닭가격을 kg당 최고 9.4링깃(약 2달러), 계란가격을 A등급 기준 개당 최고 45센(0.1달러)으로 규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유지함.⁷⁾

■ [TF 구성]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2022년 6월 말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인 '인플레이션 대응 지하드(Jihad Tangani Inflasi)'를 발족함.⁸⁾

- 통신멀티미디어부 장관이 TF 의장을 맡고 재무부·농식품부·국내유통 및 소비자부 부처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는 매주 2회 개최되며, 회의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됨.

6) Hussain, Hasnoor(2022. 10. 10), "Malaysia eases restrictions on live chicken exports," *Reuters*(검색일: 2022. 11. 10).

7) Raghu, Anuradha(2022. 6. 29), "Malaysia Reinstates Price Cap for Chicken Amid Rising Food Costs," *Bloomberg*(검색일: 2022. 11. 10).

8) Tan, Tarrence(2022. 6. 29), "Govt launches special team to address rise in cost of living," *The Star*(검색일: 2022. 11. 10).

다. 필리핀

- [통화정책]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2~4%)를 큰 폭으로 상회함에 따라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2022년 5~11월에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Overnight Reverse Repurchase Rate)를 300bp 인상함(2%→5%).
 -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10월 기준 7.7%로 상승하고 페소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큼.
- [공급 확대] 정부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공급 병목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함.⁹⁾
 - 벤자민 디오크노 재무부 장관은 2022년 11월 식량 및 에너지 부문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개선, 전기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재무부 장관은 돼지고기·쌀·옥수수·석탄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행정명령(EO No. 171)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필수 농산물 및 원자재 수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임.
 - 2022년 6월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농업부 장관직을 겸하며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음.¹⁰⁾
- [보조금 지급]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피해가 큰 직업군과 취약계층에 대해 연료보조금과 현금 지원을 제공함.
 - 정부는 운전기사, 농어민 등 유류비 부담이 큰 직업군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연료보조금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함.
 - 필리핀 예산관리부는 2022년 3월 교통부의 연료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25억 페소(약 4,400만 달러), 농업부의 연료 할인 프로그램에 5억 페소(약 880만 달러)를 지원함.¹¹⁾
 - 필리핀 정부는 교통부 연료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공 유틸리티 차량 운전기사에게 1인당 6,500페소(약 114 달러), 농업부 연료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민에게 최대 3,000페소(약 53달러)의 연료비 할인을 제공함.

라. 싱가포르

- [통화정책]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의 중간값과 기율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2021년 10월부터 통화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¹²⁾

9) "Philippine govt to address supply bottlenecks to tame inflation - finmin"(2022. 11. 4), *Reuters*(검색일: 2022. 11. 10).

10) Calanzo, Andreo(2022. 6. 20), "Marcos Names Himself Agriculture Chief to Tackle Food Cost," *Bloomberg*(검색일: 2022. 11. 10).

11) Philippine News Agency(2022. 3. 10), "DBM releases P3 billion for fuel subsidy, discount programs."

12) 싱가포르의 통화정책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기준금리 대신에 명목실효환율의 밴드 기율기, 폭, 중간값을 조절하는 방식을 활용하며, 밴드의 기율기와 중간값을 높이는 것이 통화긴축을 의미함.

- 싱가포르는 2021년 10월 이후 명목실효환율의 밴드 기울기(2021년 10월, 2022년 1월, 2022년 4월)와 중앙 값(2022년 4월, 2022년 7월, 2022년 10월)을 각각 세 차례 올리는 방식으로 통화긴축정책을 시행함.
- 싱가포르 정부는 수입 유발 인플레이션과는 별개로 국내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로 인한 임금상승 압력이 2022년 말과 2023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통화긴축 정책을 통해 얼마나 상쇄될 수 있는지가 향후 정책 수립의 주안점이 될 것임.

■ [생활보조금 지원]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2년 10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총 15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¹³⁾를 마련함.

- 싱가포르 재무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 패키지는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으며, 250만 명의 싱가포르 성인이 1인당 최대 500싱가포르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을 예정임.
 - 현금 지원 외에도 대중교통 보조금, 교육비용 보조금 등의 지원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마. 태국

■ [통화정책]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5%로 유지했으나,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이 심화되자 2022년 8월과 9월 각 25bp씩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함.

- 2022년 2월 이후 태국 물가상승률은 5%를 넘어섰으나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해 다른 아세안 주요국에 비해 소극적으로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보조금 지급] 2022년 하반기 태국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의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원조치를 연장함.

- 태국정부는 2022년 2월에 도입한 경유세 인하조치를 9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1월까지 경유 1리터당 세금 5바트(190원)가 감면됨.¹⁴⁾
- 태국정부는 2022년 9~10월 서민층 2,650만 명에게 총 212억 바트(약 7,800억 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음.¹⁵⁾

바. 베트남

■ [통화정책]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23일 기준금리를 100bp(1%p) 인상한 것에 이어 10월 25일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함.

13) Ministry of Finance(2022. 10. 14), "\$1.5 billion Support Package to Provide Further Relief for All Singaporean Households with more support for Lower-to Middle-Income Groups"(검색일: 2022. 11. 16).

14) 강중훈(2022. 9. 14), 「태국, 치솟는 물가에 연료비 보조금 추가 지원」, 『연합뉴스』(검색일: 2022. 11. 13).

15) 강중훈(2022. 7. 27), 「태국, 물가 급등에 1조원 규모 보조금 추가 지원」, 『연합뉴스』(검색일: 2022. 11. 13).

- 9월 베트남의 기준금리(Refinancing Rate) 인상은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며(4%→5%) 2020년 10월 인하 이후 약 2년 만의 금리 조정임.
 - o 지난 9월 21일 팜 민 쩌 총리의 금리인상 검토 지시 후 하루만에 인상이 결정됨.
- 10월 24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9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한 달 만에 추가적 금리인상을 발표함(5%→6%).
- 최근 금리인상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동화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이 목적이라고 밝힘.
 - o 베트남 동화 가치는 아세안 주요국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나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가치 하락은 금리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 [보조금 지급] 베트남 정부는 유류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인하하여 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2022년 4월 유류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였으며, 7월 추가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승인함.
 - o 가솔린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2022년 4월 4,000동에서 2,000동으로 인하되었으며, 7월에 50%가 추가적으로 감면됨.
- 2022년 9월 베트남 재무부는 △특별소비세 50%, 부가가치세 20% 인하 혹은 △특별소비세 50%, 부가가치세 50%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¹⁶⁾
 - o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1~0.15%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물가상승에 따른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가. 환율

■ [인도네시아] 글로벌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미국 및 주요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아 2022년 10월 평균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1만 5,435루피아로 2022년 1월 평균 대비 7.6% 상승함.

- 2018~20년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충격 발생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큰 평가 절하폭을 보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 및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폭은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임.
 - o 이와 같은 기간별 변동폭 차이는 2018~20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가장 큰 국가였으나 2022년에는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o 신흥국의 경우 대외충격 발생 시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대체로 통화가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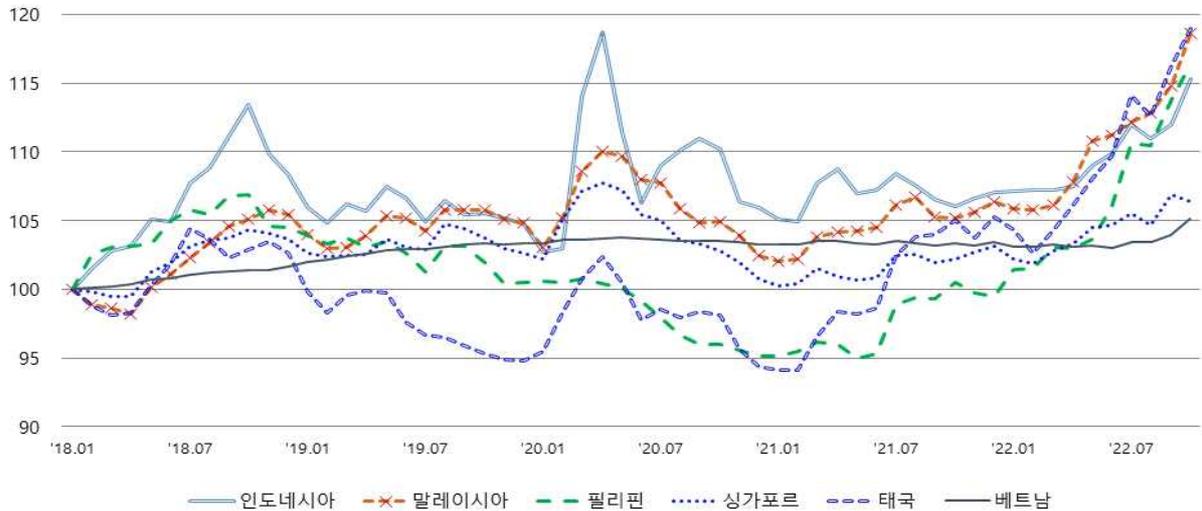
16) Reuters(2022. 9. 23), "Vietnam plans cuts in fuel taxes as inflation rises"(검색일: 2022. 11. 16).

- 2022년 11월 15일 기준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1만 5,571루피아로 10월 평균 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소폭 하락함.

그림 5. 아세안 주요국의 대(對)달러 환율 변동 추이

A. 월별 변화 추이(2018. 1~2022. 10)

(단위: LCU/USD, 2018년 1월=100)



B. 일별 변화 추이(2022. 1. 3~11. 15)

(단위: LCU/USD, 2022년 1월 3일=100, 태국은 1.4=100)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2. 11. 18); Bloomberg(검색일: 2022. 11. 15).

■ [말레이시아] 달러 대비 링깃 환율은 2022년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경기악화 우려 등에 기인해 급등했으나, 2022년 11월 들어서는 다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임.

- 2018년 초 미·중 통상마찰 이후 약세 추세를 보이던 달러당 링깃 환율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후 백신 보급, 방역지침 완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기인해 다소 안정되는 움직임을 보였음.

- 2022년 10월 평균 달러당 링깃 환율은 4.7링깃으로 2022년 1월 평균 대비 12% 상승함.
- 2022년 11월 4일 4.75링깃까지 상승했던 달러당 링깃 환율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져 11월 15일 4.59링깃으로 하락함.
- 다행인 점은 말레이시아가 원자재 수출국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엄격한 외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필리핀] 미국 금리인상과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2022년 1~10월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22년 11월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됨.

- 달러당 페소 환율은 2018년 초 미·중 통상마찰 이후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1년에는 물가 안정, 수입액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 및 외환보유 증가 등에 기인해 2018년 1월 대비 페소 가치가 상승하였음.
- 2022년 10월 평균 달러당 페소 환율은 59.8페소로 2022년 1월 대비 15% 상승하며 페소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22년 11월 들어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임.
 - 최근 페소 약세는 고물가 지속, 쌍둥이 적자 지속(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안전자산으로 투자자 이동 등의 요인에 기인함.
 - 필리핀은 식량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페소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싱가포르] 2022년 월평균 미국 달러 대비 싱가포르 달러 환율은 9월 1.41을 기록하며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 1.40보다 높은 환율을 기록했으나, 10월부터 하락세로 반전됨.

- 2020년 3월 1.42로 정점을 찍었던 월평균 환율은 2020년 12월에 1.33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 상반기부터는 반등해 2022년 9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짐.
- 환율은 2022년 10월부터 상승세가 꺾였고 11월부터는 하락세에 접어들어 11월 15일 현재 1.37까지 하락함.

■ [태국] 2022년 10월 평균 달러당 바트 환율은 38.0으로 2022년 1월 대비 14.1% 상승하였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물가상승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리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8~20년 태국의 바트화 환율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 충격에도 비교적 낮은 변동폭을 유지했으나, 2022년 물가상승 및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변동폭이 다른 아세안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됨.
- 이와 같은 기간별 변동폭 차이는 태국이 2018~20년에는 아세안 국가 중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으나, 2022년에는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11월 15일 기준 달러당 바트 환율은 35.7로 10월 평균 대비 크게 하락함.

- [베트남] 주변국에 비해 대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9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10월 말 이후 상승세가 완화된 모습을 보임.
 - 수출 기반의 성장 지속과 안정적 물가를 바탕으로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베트남 동화의 연초 대비 연말 변화율이 2018~21년간 -0.08~1.66%를 기록함.
 - 2022년의 경우 1~8월 말 기간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은 2.88% 상승했으나 9월 말의 경우 전월대비 1.69% 상승했으며, 10월 말의 경우 전월대비 4.09% 상승하며 연초대비 8.97% 상승함.
 -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한 10월 17일,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85% 상승했으며 이후 5영업일간 1.69% 상승한 후 상승세가 둔화됨.
 - 다만 10월 25일 이후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환율 1일 변동률은 일부 날짜를 제외하고 0.05% 이하로 변동폭이 감소했으며 일부 날짜의 경우 전일대비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음.

나. 최저임금 인상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8% 인상되었고, 2022년에는 2021년의 441.6만 루피아에서 464.2만 루피아(약 40만 원)로 5.1% 인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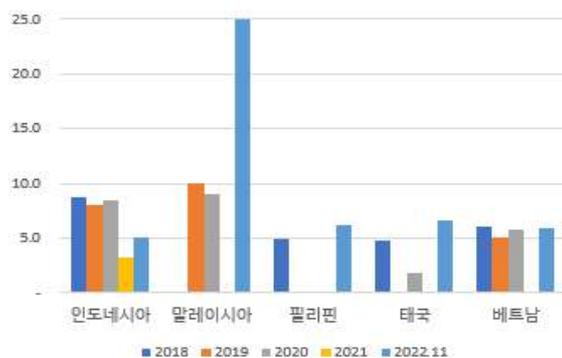
표 1. 아세안 주요국의 최저임금 추이(2018~22년)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월	월	월	일	일	월
단위	천 루피아	링깃	페소	바트	천 동
2018	3,648	1,000	537	325	3,980
2019	3,941	1,100	537	325	4,180
2020	4,276	1,200	537	331	4,420
2021	4,416	1,200	537	331	4,420
2022.11	4,642	1,500	570	353	4,680

주: 각국별 수도 기준 최저임금이며, 해당 연도별 12월 기준임. 필리핀은 수도의 비농업 분야 최저임금임. 싱가포르의 일부 분야 외에는 최저임금이 없음.

자료: CEIC(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말레이시아), 자카르타 주지사령 2021년 1517호(인도네시아 2022년), 세계법제정보센터(베트남 2022년)(검색일: 2022. 11. 7).

그림 6. 아세안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2018~22년)



주: 각국별 수도 기준 최저임금이며, 해당 연도별 12월 기준임. 필리핀은 수도의 비농업 분야 최저임금임. 싱가포르의 일부 분야 외에는 최저임금이 없음.

자료: CEIC(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말레이시아), 자카르타 주지사령 2021년 1517호(인도네시아 2022년), 세계법제정보센터(베트남 2022년)(검색일: 2022. 11. 7).

- 2018~22년 인도네시아 내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자카르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역 간 최저임금 수준은 격차가 큰 편임.
 -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464.2만 루피아이나,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보유한 중부 자바의 경우 181.3만 루피아(약 16만 원)임.

- 2023년 월 최저임금은 아직 미정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노동단체들은 13% 인상을 요구하며 2022년 12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음.¹⁷⁾

표 2.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별 월 최저임금 현황

(단위: 천 루피아)

지역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카르타	3,648	3,941	4,276	4,416	4,642
서부 자바	1,544	1,668	1,810	1,810	1,841
중부 자바	1,486	1,605	1,742	1,799	1,813
발리	2,127	2,298	2,494	2,494	2,517
남부 칼리만탄	2,560	2,765	3,001	3,001	3,017
남 술라웨시	2,648	2,860	3,104	3,166	3,166
파푸아	3,000	3,241	3,517	3,517	3,562
서부 수마트라	2,119	2,289	2,484	2,484	2,513
전국 평균	2,269	2,456	2,672	2,685	2,722

주: 총 35개 지역별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표에서는 일부 주요 지역만 제시함.
자료: CEIC(검색일: 2022. 11. 17).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동결했던 월 최저임금을 2022년 5월 2년 3개월 만에 1,500링깃(약 324달러)으로 인상하고 지역별 최저임금도 단일화함.

- 2022년 5월 월 최저임금(1,500링깃)은 기존 대비 300~400링깃 인상된 것으로, 인상 배경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고도화 등임.
 - 기존 최저임금(2020년 2월~2022년 4월 적용)은 57개 주요 도시의 경우 월 1,200링깃(259달러), 그 외 지역의 경우 1,100링깃(238달러)이었음.
- 최저임금 인상조치로 인해 청년층·외국인·지방 근로자들의 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최근 경기회복,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2022년 6월 수도권(NCR: National Capital Region)을 포함한 14개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을 인상함.¹⁸⁾

- 경제활동이 집중된 수도권은 3년 반 만에 일일 최저임금이 33페소(0.58달러)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비농업 기준 약 6%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필리핀은 17개 행정구역 및 산업(농업, 비농업, 서비스업 등)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10월 기준 14년 만에 최고치인 7.7%를 기록하며 물가가 급등하자 임금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조치가 물가 인상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¹⁹⁾
 - 이에 노동고용부는 2022년 11월 초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RTWPB)에 추가 최저임금 인상안 검토를 지시함.²⁰⁾

17) Temco.co(2022. 11. 9), "KSPI: 13% Hike in Minimum Wage Feasible as Economic Growth Hit 5.72%"(검색일: 2022. 11. 17).

18) PNA(2022. 6. 6), "Wage hikes in 14 regions take effect in June"(검색일: 2022. 11. 17).

19) Inquirer(2022. 11. 7), "Inflation has shaved P76 off the P570 minimum wage in NCR, workers group says"(검색일: 2022. 11. 17).

표 3. 필리핀 수도권(NCR)의 일일 최저임금 현황(2022년 11월 10일 기준)

산업	기존 최저임금	신규 최저임금(2022년 6월 인상)	인상폭
비농업	537페소	570페소	33페소
농업(플랜테이션 포함)	500페소	533페소	33페소
서비스업 및 유통업(근로자 15인 이하)			
제조업(근로자 10인 미만)			

자료: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https://nwpc.dole.gov.ph/>(검색일: 2022. 11. 7).

■ [싱가포르]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1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별로 임금상승 압력에 큰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 노동부가 발표한 명목임금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에 그쳤던 상승률이 2021년에는 3.9%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2019년) 수준(3.9%)으로 회복함.
- 다만 2021년에 호텔 및 숙박업(1.7%), 식당(2.6%) 등의 상대적 저부가가치 산업은 평균보다 낮은 명목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에, 정보통신업(5.1%)과 전문서비스 업종(5.3%) 등 상대적 고부가가치 산업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 초과수요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임을 싱가포르 통화청이 10월 전망자료를 통해 예측한 가운데, 추후 발표될 2022년 통계에서도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관측될 가능성이 큼.

■ [태국] 방콕의 일일 최저임금은 2020~21년에는 331바트(약 1만 2,000원)로 인상 없이 유지되었으나, 2022년 10월에는 353바트(약 1만 3,000원)로 6.6% 인상됨.

- 태국 노동부는 2년여 만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용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밝힘.²⁰⁾
- 2020~22년 태국 내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은 방콕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지역 내 격차는 크지 않은 편임.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촌부리(Chon Buri), 라용(Rayong), 푸켓(Phuket)으로 일 354바트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알라(Yala), 빠파니(Pattani) 등으로 일 328바트임.

■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제2도시 호치민시 등이 포함된 1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2021년 동결된 후 2022년 7월 468만 동(약 25만 원)으로 전년대비 5.88% 인상됨.

-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수도 하노이시, 제2도시 호치민시 등이 포함된 1지역, 1지역의 교외와 그 근교 지역, 다낭시, 하이퐁시 도심 등을 포함하는 2지역, 박닌성, 박장성 등을 포함한 3지역, 그 외 4지역 등 총 4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적용됨.

20) Villa, Kathleen de, Domingo, Ronnel W.(2022. 11. 9), "Citing steep price hikes, DOLE orders wage review," *Inquirer*(검색일: 2022. 11. 17).

21) "Thailand hikes minimum wage for first time in over 2 yrs"(2022. 8. 26), *Reuters*(검색일: 2022. 11. 16).

-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2022년 4월 12일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노사가 평균 6% 인상과 7월 시행에 합의함.

표 4. 베트남 지역별 월 최저임금 현황

지역	기존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7월 시행)	인상률
1지역	4,420,000동	4,680,000동	5.88%
2지역	3,920,000동	4,160,000동	6.12%
3지역	3,430,000동	3,640,000동	6.12%
4지역	3,070,000동	3,250,000동	5.86%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7월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검색일: 2022. 11. 11).

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 [인도네시아] 2022년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8을 기록하며 9월의 53.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점²²⁾인 50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도네시아 PMI는 꾸준히 50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최근 3개월간 (2022년 8~10월)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중국, 한국, 대만 등의 PMI가 50 이하로 집계된 것을 고려했을 때 양호한 수치로 분석됨.

그림 7. 아세안 주요국의 제조업 PMI 추이(2018. 1~2022. 10)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2. 11. 1).

22)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경기 확장, 50 이하이면 제조업경기 위축을 의미함.

- [말레이시아] 2022년 10월 말 기준 제조업 PMI가 48.7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 미만을 유지해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 PMI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말에 31.3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었던 2021년 6월 말 39.9를 기록하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음.
 - 제조업 PMI는 2022년 들어 3월 말(49.6)을 제외하고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2년 9월 말부터 50 미만으로 하락함.
 - 최근 제조업 PMI 하락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기인함.
 - 긍정적인 점은 최근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기업심리가 개선되었다는 점임.²³⁾

- [필리핀] 2022년 10월 말 기준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

 - 필리핀의 제조업 PMI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말 31.6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 9월 말부터는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유지함.
 - 최근 제조업 PMI 상승은 내수회복에 따른 신규 주문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최근의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 차질, 항만 적체로 인한 물류 지연 등은 제조업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2022년 10월 말 제조업 PMI는 기준점보다 낮은 49.7을 기록하고 있어 제조업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초 급감하여 4월에 44까지 하락했던 제조업 PMI는 2020년 하반기에 다시 50대로 회복하였고 2022년 8월 말까지 50 이상을 유지함.
 - 하지만 2022년 9월 49.9로 하락하며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점 이하를 기록한 후, 10월에도 하락 기조를 이어감.
 - 한편 민간 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한 PMI는 주문 확대와 노동수요 증대에 힘입어 55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싱가포르의 산업 부문별로 경기전망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태국] 2022년 10월 제조업 PMI는 51.6으로 전월 기록인 55.7에 비해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점인 50 이상을 기록함.

 - PM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준점인 50을 넘지 못하는 기간이 많았으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3개월 연속 50을 넘었음.

- [베트남] 2022년 10월 제조업 PMI는 50.6을 기록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50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23) S&P Global(2022. 11. 1), "S&P Global Malaysia Manufacturing PMI: Malaysia's manufacturing sector loses further momentum in October."

- 베트남의 PMI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대체로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1년 3/4분기 산업단지 중심의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제조업 PMI는 40대로 하락함.
- 베트남 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라 제조업 PMI는 2021년 10월 이후 50을 초과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이후에는 하락 추세임.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아세안 주요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2년 11월 초 2023년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²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2022년: 5.4%, 2023년: 4.9%), 말레이시아(2022년: 6.8%, 2023년 4.0%), 필리핀(2022년: 6.4%, 2023년 5.3%), 베트남(2022년: 7.1%, 2023년 6.6%)은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태국 경제성장률(2022년: 3.0%, 2023년 4.0%)만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²⁵⁾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럽의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봉쇄조치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아세안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PMI가 2022년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경기회복 지연을 뒷받침하는 증거임.
- 여기에 더해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고물가와 긴축기조가 2023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수도 있음.

■ 아세안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및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및 구매력 감소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5~16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경제가 2015년 1/4분기 이후 위축 국면에 접어든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표 5 참고).
 - 한국은 2015~16년 전체적으로 수출이 부진했으며, 특히 아세안을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²⁶⁾
- 아세안 국가들의 통화긴축 기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는 2023년 대아세안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 2022년 10월 대아세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이는 20개월 만의 감소임.
- 또한 환율상승은 아세안 각국의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감소로 이어짐.
- 따라서 한국정부가 2022년 11월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디지털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11. 10), 「2023년 세계경제 전망」.

25)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진행하지 않음.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4. 5),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과 회복: 구조적 원인과 특징」.

통상협력을 포함시키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언급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원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5.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구분	(단위: 억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820 (3.7)	846 (3.2)	748 (-11.6)	745 (-0.4)	952 (27.8)	1,001 (5.1)	951 (-5.0)	890 (-6.4)	1,088 (22.2)	
수입액	533 (2.5)	534 (0.2)	450 (-15.7)	443 (-1.6)	538 (21.4)	596 (10.8)	562 (-5.7)	548 (-2.5)	677 (23.5)	
무역수지	287	312	298	302	414	405	389	342	41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K-stat, 검색일: 2022. 11. 16).

■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은 환율 변동과 임금상승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앞선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주요국의 통화 가치는 최근 하락하는 추세이며, 환율이 급변할 경우 기업들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운용에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음.
-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환변동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정부는 2022년 9월 수출신용보증의 한도와 보증기한을 확대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²⁷⁾
- 아세안 주요국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반영한 경영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지 진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본고에서 분석한 아세안 6개국 모두 임금상승을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으며,²⁸⁾ 이는 한국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KIEP**

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9. 7), 「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 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검색일: 2022. 11. 21).

28)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홈페이지, “2021 JETRO Survey on Business Conditions of Japanes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Asia and Oceania)”(검색일: 2022. 11. 16).